

나주시 '주민과의 대화' 효율성 논란

민원 남발·편중...현안사업 밀리고 부서간 갈등 부작용 공무원 동원에 업무마비 등 행정력·예산 낭비 지적도

나주시 등 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매년 연초만 되면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각 읍·면별 '연두 순시(주민과의 대화)'에 나서면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선시대를 맞아 지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겠다는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연두순시 행사 때 마다 공무원을 대거 동원하면서 민원성 업무 등이 마비되는가 하면 현장에서 제기된 무분별한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느라 각 부서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주민과의 대화는 명분일 뿐 사실상 '지역 이기주의성 민원해결 창구'로 전락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의 성격이 짙다는 주장마저 제기되면서 개선이 시급

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한달여동안 시장과 관계 공무원, 지역구의원, 200명 내외의 주민이 참석하는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올해도 20개 읍·면·동을 돌며 총 21회를 실시했다.

나주시는 올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총 320건의 민원사항을 접수받았다. 민원 내용은 농로포장과 도로개설 등 특정지역 내 민원성 건설사업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주시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민원접수 건수가 지난 2013년 393건에서 2014년 866건(초도순방 488건 포함), 2015년 658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는 편중·중복 등 무분별한 건의를 줄

이기 위해 일부 제약을 뒀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건의된 민원을 분석해 보면 주민 1명이 11건의 민원을 건의한 것을 비롯, 지난 3년간 5건 이상의 민원을 건의한 시민이 48명 292건으로 전체 건수의 15.5%나 차지하는 편중 현상마저 나타났다. 이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의 민원 건의 참여 기회가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나주시의 자체 분석이기도 하다.

나주시 시민소통실 관계자는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해결해 준다는 인식 때문에 건의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민원 남발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구역 중심에서 나주시내·영산포·남부·북부권역 등 생활권역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시민소통실은 또 각 읍·면·동사무소에

서 주민 숙원사업을 민원접수 받은 뒤 사전검토를 거친 뒤 15건 이내에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직장인·학생 및 장애인, 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한 각 그룹별 소규모 대화의 장 마련 등도 검토중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 같은 시민소통실의 개선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적극적인 검토 지시를 내렸지만,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기존방식을 고수하며 강력히 반대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내부적으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나주시의 한 관계자는 "시급한 현안사업은 뒤로 미룬 채 '주민과의 대화'에서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지역(인)의 민원사업을 우선 해결하는 기존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면서 "결국 한정된 예산으로 민원성 사업에 치중할 경우 다수의 나주시민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나주 '古都 전통 자원화사업' 가속도 강인규 시장, 기재부 방문 예비타당성 통과 적극 요청



강인규 나주시장 최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고도 전통 문화 자원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심사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관심을 요청했다.

나주시가 영·호남 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영·호남 지명유래 고도(古都) 전통 문화 자원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영·호남 지명유래 고도 전통 문화 자원화 사업'은 2017년부터 5년간 1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선시대 목사고을인 나주시와 감영도시인 상주시의 읍성, 향교, 산성 등 역사 문화 자원을 공동으로 복원해 지역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사업은 '영호남 고도 상징성 회복사업'으로는 ▲고도(古都) 상징 게이트 조성 ▲호남 문화진흥원 건립 ▲사적단 문화공원 조성 등이다.

또 '영호남 전통문화 거점사업'으로 ▲전원문화 읍성 둘레길, 영산포 근대 문화단지 조성 ▲타임 터널 ▲나주천 수변문화공간 조성 등을 추진한다.

나주시와 상주시는 지난 2014년 8월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맺은 후 지난해 9월 조선감영 역사인문 포럼 개최에 이어 11월에는 나주 동신대에서 영·호남 지명유래 역사 인문 포럼을 진행한 뒤 지난 1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신청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신흥도시들과 지역격차 가속화로 쇠락한 도시를 전통문화 도심으로 재생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한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심사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호남 역사 고도의 문화 유산을 활용해 영호남이 상생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호남대 공자아카데미 나주분원 설치 협약 체결

나주시는 "지난 15일 시청 이화실에서 호남대학교, 나주교육지원청, 나주공공도서관과 함께 중국형 글로벌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한 교육 발전과 역량 강화를 위해 '호남대 공자아카데미 나주분원 설치'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인규 나주시장 및 호남대학교 박상철 부총장, 나주교육지원청 오인성교육장, 나주공공도서관 이종범관장 등 교육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는 중국 후난대학과 호남대학이 자매결연을 맺고 중국교육부로부터 검증된 원어 민 강사를 초빙하여 중국어 교육과 중국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나주공공도서관에 설치하는 나주분원은 4월부터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분원 설치로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나주시민과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세대 중국전문가 양성을 통한 대 중국 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나주로 마실 가자...시티투어 26일 시동



매주 토요일 역사 유적지 탐방 5월엔 친환경디자인박람회 경유

나주시가 버스를 타고 떠나는 '나주시 시티투어(City-Tour)' 관광 프로그램이 오는 26일 시동을 건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11월 12일까지 9개월간 진행되는 시티투어 프로그램은 나주의 주요 관광 역사유적지를 찾아 매주 토요일 한차례 운영된다.

주요 운행 코스는 나주역(기차지)→혁신도시(한국전력)→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나주읍성권(중식)→주요 관광지(황포돛배 체험장·천연염색박물관·국립나주

박물관 등)→나주역(중차지) 등이다.

오는 5월 5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은 나주 산포면 전남도농업기술원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열리는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현장을 경유하는 코스가 평일과 주말 2개 코스로 별도로 운영된다.

평일 코스는 박람회장→한국전력→황포돛배→읍성권→박람회장, 주말코스는 박람회장→황포돛배→국립박물관→읍성권→박람회장을 오후 1시30분에 출발해 오후 6시까지 매일 1회씩 운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나주로 마실가자'를 슬로건으로 첫 선을 보인 나주시티투어는 천년고도 목사고을 나주시지역의 유명 관광지를 편

리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국내 유일의 내륙 항구도시인 영산포 선착장에서 황포돛배를 타고 영산강 유람과 함께 선상공연을 즐기는 황포돛배 체험도 큰 인기를 끌었다. 올해는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현대식 쾌속 유람선 '영산강호'가 새롭게 투입돼 관광객들을 맞을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시티투어는 8000원으로 나주 전체를 여행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라면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주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어르신 1600명 대상 일자리 사업 시작



나주시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11월까지 건강 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나선다.

시는 사업비 34억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300명이 늘어난 1600명의 어르신들에게 38개 분야의 공익형 및 시장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나주에서 시행하는 직접수행사업과 나주시니어클럽 등 6개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민간수행사업으로 추진되며, 매월 30시간 근무 기준으로 20만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특히 6070정촌택배, 공동작업장, 실버카페운영,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등 16개 분야 450여명이 참여하게 되는 시장형 일자리는 노인에겐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직종 사업 등을 공동 운영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인기가 높다.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을 창출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